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해방후 인민적인 도서관건설사업을 현명하게 이끌어주신 불멸의 업적

박 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도시와 로동자구들을 비롯하여 여러곳에 도서관들을 꾸리고 그것을 거점으로 하여 학생들과 근로자들이 열심히 공부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김일성전집》 제48권 98페이지)

도서관은 사람들을 자주적인 사상의식과 높은 과학기술지식, 풍부한 문화적소양을 지니도록 하는데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해방후 우리 나라에서 진정으로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는 참다운 인민적인 도서관을 건설하기 위한 사업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짧은 력사적기간에 성과적으로 수행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해방후 인민적인 도서관건설사업을 현명하게 이끌어주신 불멸의 업적에서 중요한것은 무엇보다먼저 우리 나라에 군중도서관들을 합리적으로 배치하도록 하신것이다.

군중도서관들을 합리적으로 배치하는 사업은 본질에 있어서 인민대중이 나라의 귀중한 문헌적재부를 효과적으로 리용할수 있도록 도서관을 계획적으로, 균형적으로 배치하는 사업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각급 학교들에 도서실을 꾸리기 위한 사업을 전국적범위에서 힘있게 밀고나가도록 하시였다.

각급 학교도서실들은 학생들이 배운 지식을 공고히 해나갈수 있는 중요한 학습거점인 동시에 혁명적인 학습기풍, 독서기풍을 세워나가는 과외학습기지이다.

1949년에 우리 나라에는 수천여개의 각급 학교들이 설립되고 여기에서 많은 청소년학생들이 공부하고있었다. 그러다나니 책에 대한 수요가 급격히 늘어났으며 이러한 실태는 각급 학교들에서 실정에 맞게 도서실들을 설치할것을 절박하게 요구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주체36(1947)년 7월 중순 어느날 평양제2인민학교(당시) 교장에게 학교사업에 쓰도록 친히 자금도 마련하여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크나큰 은정에 감격한 학교에서는 그 돈으로 교직원, 학생들과 지어는 학부형들까지 널리 리용할수 있는 《김일성장군기념도서관》(당시)을 정중히 꾸리였다.

이 소식은 커다란 반향을 불러일으켰으며 학교도서실을 자체의 힘으로 꾸리기 위한 사업에 수많은 학부형들과 인민들이 떨쳐나섬으로써 1947년말까지 기본적으로 끝내는 성과를 거두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우리 나라 시, 군들에 지역적거점을 단위로 도서관들을 내오기 위한 사업을 힘있게 밀고나가시였다.

지역적거점에 따라 도서관들을 내온다는것은 시, 군안의 근로자들에게 편리한 사회적 학습조건과 환경을 마련해줄수 있도록 도서관들을 합리적으로 배치한다는것을 말한다.

해방후 우리 나라에는 일제의 식민지통치후파로 하여 전국적으로 도서실이 7개밖에 없

었다. 그것마저도 장서의 대부분이 반동적인 출판물들이었다.

이러한 실정은 해방된 조국땅에 새 사회의 주인으로 된 근로인민대중을 위하여 참답게 복무하는 인민적인 도서관들을 건설할것을 절박하게 요구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주체36(1947)년 2월 북조선 도, 시, 군인민위원회대회에서 1947년에 구락부, 박물관, 극장과 함께 도서관 67개, 도서관실 536개를 새로 내올데 대한 과업을 제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새 조국건설구상을 높이 받들고 우리 인민은 도서관을 설립하기 위한 투쟁에 힘차게 떨쳐나섰다.

각지에서 인민도서관설립준비위원회가 조직되어 여러 사회단체들과의 협력밑에 사람들속에 도서관설립의 의의를 광범히 해설선전함으로써 그들을 적극 발동시켰다. 그리하여 이 사업은 애국적인 성격을 띠고 도서기증, 로력지원, 물질재정적지원 등 다양한 형태로 진행되였다.

재령군인민도서관건설에 대하여 당시 《조선민보》는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애국미헌납의 봉화를 올린 북동면에서는 도서관건설의 애로를 듣자 너도나도 기증미를 수집하여 신지리 150가마니, 북지리 10가마니 6두, 쌍교리 10가마니를 사용해달라고 보내여왔다. 관장은 이에 감격하였다. 이와 같이 농민들이 도서관의 사명을 철저히 인식하고 기증미까지 보내여왔다.》(《조선민보》1947년 12월 13일부)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와 우리 인민들의 드높은 애국적열의속에 우리 나라의 시, 군들에 수많은 도서관들이 일떠서게 되었으며 지역적거점을 단위로 하는 새로운 군중도서관들이 설립되게 되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공장, 기업소들과 농촌을 비롯한 생산적거점을 단위로 하여 도서관들을 설립하기 위한 사업을 힘있게 밀고나가시였다.

생산적거점을 단위로 하여 도서관들을 설립하는것은 도서관을 생산현장에 접근시키고 근로자들에게 보다 유리한 학습조건과 독서환경을 마련해주기 위한 중요한 사업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주체 36(1947)년 4월 북조선인민위원회에서 《북조선성인교육 및 직장교육체계에 관한 결정》을 채택하도록 하시고 지난날 일제의 식민지통치로 하여 배움의 길을 잃고 우리 글조차 모르던 근로자들이 마음껏 배울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였다.

해방후 우리 인민은 누구나 성인학교에 다니면서 우리 글을 마음껏 배우게 되었으며 이러한 현실은 지역적거점뿐아니라 생산적거점을 단위로 하는 도서관들을 꾸릴것을 절박하게 요구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성인교육체계의 혜택으로 우리 글을 배우고 새 사회건설의 주인이 되어 생산과 건설에서 혁신을 일으키고있는 근로자들속에 당의 로선과 정책을 제때에 알려주며 그들의 기술기능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공장, 기업소, 생산직장들에 도서관실들을 광범히 내오고 그에 대한 지도를 강화하도록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공장, 기업소뿐만아니라 농촌들에서도 민주선전실을 거점으로 당 출판물을 비롯한 각종 문헌자료들을 비치해두고 광범히 리용하도록 하시였다.

당시 농민이 인구의 절대다수를 차지하고있던 우리 나라에서 농민들에 대한 사상교양과 문화기술수준을 높이는 사업은 우리 혁명의 대중적지반을 강화하고 새 사회건설을 힘있게 다그쳐나가는데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지였다.

이 시기 우리 나라 농촌들에 꾸려진 민주선전실들은 농민들의 사회적학습거점으로서 출판물들과 도서들을 비치해놓고 당정책해설선전과 문화적소양을 높이는데 적극 이바지하였으며 농촌의 군중문화생활의 중심기지로 활발히 운영되었다.

그리하여 1947년말에 인민경제발전계획에 예견하였던 수를 초과한 도서관과 도서실들이 도시와 농촌에 전개되었는데 해방전에 비하여 도서관수는 15배, 도서실은 1946년에 비하여 불과 1년동안에 약 12배로 장성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해방후 인민적인 도서관건설사업을 현명하게 이끌어주신 불멸의 업적에서 중요한것은 다음으로 종합적인 과학도서관을 설립하도록 하신것이다.

과학도서관은 과학자, 기술자, 전문가들을 기본대상으로 하여 새로운 과학기술을 보급하며 사회적학습을 널리 조직하는것을 기본사명으로 한다. 과학도서관에는 국가도서관, 과학원도서관, 연구기관도서관, 대학도서관 등이 속한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우리 나라에 국가도서관을 대표하는 국립중앙도서관을 내오기 위한 사업을 현명하게 이끄시였다.

해방후 온 나라 각지에 조직된 인민위원회들은 해방전 일제가 관리운영하던 도서관들을 몰수하여 인민의 소유로 만들었다.

일제의 사상문화적침략도구로 리용되어오던 《평양부립도서관》도 주체34(1945)년 11월 평양시립도서관으로 새롭게 개관되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평양시립도서관의 실태를 일일이 알아보신 다음 이제는 해방이 된 것만큼 인민들이 누구나 마음껏 책을 볼수 있게 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도서수집에서 나서는 문제, 도서소개사업을 다양한 형식과 방법으로 할데 대한 문제, 도서관일군들의 수준을 높일데 대한 문제 등 도서관관리운영에서 나서는 문제들을 하나하나 밝혀주시였다. 그러시면서 우리 나라에 아직 중앙도서관이 없는 실정에서 당면하여서는 평양시립도서관이 중앙도서관의 역할을 하면서 지방도서관들의 사업을 지도할데 대하여 그리고 평양시립도서관을 축으로 하여 전국에 정연한 도서관망을 형성하고 평양시립도서관을 본보기로 꾸려 그 경험을 일반화할데 대하여 밝혀주시였다.

이 시기 우리 나라에서는 각 도, 시, 군들에 행정구역을 단위로 하여 군중도서관들이 광범히 세워짐에 따라 우리 나라 도서관사업을 대표하는 중앙적인 대규모도서관건설이 절박한 요구로 제기되었다.

이로부터 주체35(1946)년 10월 평양시립도서관을 국립중앙도서관으로 발전시키는 국가적조치가 취해졌다.

국립중앙도서관은 그후 여러차례에 걸쳐 백두산절세위인들의 세심한 지도와 보살핌속에서 인민을 위한 도서관으로서의 사명과 임무를 훌륭히 수행하여왔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김일성종합대학에 도서관을 건설하며 과학연구기관도서실들을 세우기 위한 사업을 현명하게 이끄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주체36(1947)년 3월 대학의 한 일군에게 대학도서관사업은 교원들과 학생들에게 과학연구와 학습조건을 보장해주기 위한 중요한 사업이라고 하시면서 종합대학도서관을 종합적이고 현대적인 과학도서관으로 꾸려야 한다고 교시하시였다.

김일성종합대학에 도서관이 세워짐으로써 교원, 연구사들과 학생들을 위한 과학연구의 튼튼한 기지가 마련되고 이 과학도서관을 본보기로 하여 온 나라 대학들에 도서관들을

건설할수 있는 풍부한 경험과 토대가 축성되게 되었다.

김일성종합대학도서관의 설립에 뒤이어 당시 평양공업대학도서관, 평양의학대학도서관 등 많은 도서관과 도서실들이 설립되게 되었으며 주체37(1948)년 8월에 이르러서는 15개의 대학도서관들이 민족간부양성의 믿음직한 학습거점으로 훌륭히 꾸려졌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전쟁의 어려운 환경속에서도 우리 나라의 과학기술발전을 위하여 과학원을 창립하도록 하시고 아래단위의 과학연구부문들에 도서실들을 내오도록 하시였다.

과학원은 우리 나라에서 과학연구사업을 통일적으로 조직하고 지도하는 최고기관으로서 나라의 과학발전과 경제사업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과학기술적으로 담보하는것을 기본사명으로 하고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과학원도서관의 개관을 앞두고 많은 책들을 갖추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시고 전쟁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과학원도서관을 모란봉기슭의 안전하고 풍치좋은 곳에 자리잡게 하는 은정깊은 조치도 취해주시였다.

과학원도서관은 화학연구소, 공학연구소, 물리수학연구소, 의학연구소, 력사연구소, 경제법학연구소, 조선언어학 및 문학연구소, 생물학연구소 등에 도서실을 두고 전문화된 독자봉사체계를 수립하였다.

과학원도서관이 세워짐으로써 우리 나라 과학연구기관도서관의 본보기가 마련되고 다른 나라 과학원들과 국제적인 도서교류사업을 활발히 진행해나갈수 있게 되었다.

이처럼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해방후 근로인민대중을 위하여 참답게 복무하는 인민적인 도서관들이 수많은 세워짐으로써 우리 나라에서는 주체적인 도서관발전의 새로운 길이 열리게 되었으며 우리 인민은 그 어디에서나 마음껏 배울수 있는 진정한 사회적학습거점을 가지게 되었다.

모든 도서관부문 일군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우리 나라 도서관건설에 쌓아올리신 불멸의 업적을 견결히 옹호고수하고 더욱 빛내어나가며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령도따라 전민과학기술인재화실현에서 자기의 사명과 임무를 다해나가야 할것이다.